

발달장애인 형제를 둔 비장애 청소년의 부담감과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 - 가족탄력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장 진 아¹⁾

황 혜 원²⁾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본 연구는 발달장애인 형제를 둔 비장애 청소년의 부담감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가족탄력성이 이들 간에 조절효과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발달장애인을 형제로 둔 비장애 청소년 만11세~18세 11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SPSS 23.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 변인들 간 상관관계를 파악한 후 가족탄력성이 청소년기 비장애 형제의 부담감과 이들의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위계적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비장애 형제의 부담감은 자아존중감에 부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장애 형제가 장애형제로 인해 느끼는 부담감이 높을수록 그들의 자아존중감이 감소함을 의미한다. 둘째, 가족탄력성은 청소년기 비장애 형제의 부담감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정적으로 유의한 조절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비장애 형제의 부담감이 자아존중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가족탄력성은 보호요인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교육 및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청소년기 비장애 형제에 대한 개입의 필요성과 가족탄력성 향상을 위한 실천적 전략을 제안하였다.

주요어 : 청소년기 비장애 형제, 부담감, 자아존중감, 가족탄력성, 조절효과

1) 주 저 자 : 청주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2) 교신저자 :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교수 (E-mail: hwang@cju.ac.kr)

I. 서론

한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최초로 맺는 사회적 관계는 가족이다. 가족 관계 중 형제관계는 부모를 제외하면 가장 친밀하고 가장 오래 지속되는 관계일 것이다. 형제 관계는 동생이 태어남과 동시에 시작되고 형제 중 한명이 삶을 끝낼 때까지 지속된다. 가족 구성원 중에서 특히 형제자매들은 인생 전반에 걸쳐 관계가 지속된다. 이들은 태어나고 함께 자라면서 서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부모관계보다 훨씬 오래 지속된다. 이를 고려하면 형제자매 관계가 부모와의 관계보다 개인에게 더욱 많은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진다(조영실, 양소남, 2018). 또한, 형제자매 관계는 부모, 자녀와 같은 수직적 관계와는 달리 수평적 관계를 이루기 때문에, 형제자매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또래 경험은 사회 행동기반을 형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문혁준 등, 2012).

하지만 형제 중 한 사람의 장애로 인한 무력감은 장애가 없는 형제에게 다소간의 영향을 주게 되고 장애가 있는 자녀가 출생하게 되면서부터 많은 변화를 맞게 된다. 이들은 일반 가정의 가족구성원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다양한 사회적·심리적 어려움에 직면하며 그들만의 독특한 삶을 살아간다(육영화, 2012). 장애 형제를 둔 비장애 형제는 둘 간의 관계가 상호 호혜적인 관계라기보다는 일방적으로 장애 형제를 돌보아주거나 교사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고 일반 형제관계와 비교해 볼 때 상호작용의 양과 질에서 모두 어려움을 겪게 된다(신혜용, 2002).

이러한 정서적 어려움에 지속적으로 노출될수록 분노 등의 부정적 정서를 가질 가능성이 크며, 성장과정에서 공격성을 보이거나 우울이나 불안 등의 내재화 문제를 보이기도 한다(유신복, 손원숙, 2014). 비장애 형제는 어떤 면에서는 부모 이상으로 장애형제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 이 때 비장애 형제에게 미치는 심리적 부담은 자아존중감 형성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이혜연, 2015).

또한 비장애 형제들은 형제의 장애로 인하여 타인에게 부정적인 시선을 받는 경우가 많아 자신의 감정을 나누는 것을 어려워하기도 한다(윤혜림, 박지연 2017). 특히 이들은 부모님의 무관심 또는 과도한 기대감에서 오는 부담감과 장애인 형제를 평생 부양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부담감, 그리고 또래 친구들간의 관계에 있어서 장애 형제로 인한 사회적 활동의 제한에 대한 부담과 장애형제를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나 장애형제를 미워하는 등의 부담감을 안고 있다. 가족 내에 장애아동의 출현은 가족구성원에게 다양한 영향을 미치게 되며 그동안의 연구에서는 장애아동가족이나, 부모가 경험하는 부담감에 관한 연구결과가 제시되고 있었지만 장애인과 한평생을 같이 살아가야 하는 형제들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진하고 관심도 부족하다(이윤화, 권진욱 2002).

‘발달장애’라는 용어는 1984년 미국의 「발달장애인법 The Developmentla Disabilities Act of 1984」에서 처음 개념을 정리 하였으며, 현재에는 미국 정신 의학회(Ameriacn Psychiatric Association: APA)에서 발행된 정신장애진단,

편람 DSM-5 에서 전반적 발달장애(Pervasive Developmental Disorder: PDD)를 인지언어운동, 사회적 능력의 결함을 포함하고 있는 발달장애 질환으로 정의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장애 인구 중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의 비율은 2007년 7.3%(154,463명)에서 2017년 8.9% (225,601명)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박수경, 배종필, 이정하, 서경주, 이선우, 2019). 발달장애인은 이처럼 매년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는데 그들이 겪게 되는 경험은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므로 그 어려움은 쉽게 없어지지 않는다(전혜인, 1997). 비장애 형제의 경우 성인기와 노년기 등 비장애 형제의 전 생애에 걸쳐 발달장애인의 보호 역할을 맡게 된다는 사실은 장기적으로 발달장애인에게 부모보다도 비장애 형제와 관계가 더 중요한 자원임을 의미하는 것이며, 형제로서 정서적인 부담이 부모의 것과 견줄 만한 것임을 시사한다. 장애인의 비장애 형제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장애 형제가 있는 한 가정의 장기적인 미래 뿐 아니라 장애 형제와 비장애 형제의 개개인의 삶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류수민, 한영주, 2015).

한편 장휘숙(2007)의 연구에 의하면 형제관계가 긍정적인 경우 친구관계도 긍정적이고 형제관계에 갈등이 있으면 친구관계 역시 갈등적인 것으로 연구되었다. 또한 두 가지 관계가 모두 긍정적인 청소년이 모두 부정적인 청소년보다 더 큰 삶의 만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개인에게 가장 중요한 타인은 바로 가족이다. 장애인 가족에게 있어서도 이것은 예외가 아닌데, 장애 형제와 비

장애 형제는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성장기에 부모로부터 받은 피드백과 서로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존감을 형성해 나간다. 특히 형제관계는 공통적인 유전적, 문화적, 경험적 환경을 공유(Ross & Dalton, 1981) 한다는 점에서 형제간의 상호작용이 개인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강효경과 유장순(2012)의 연구에서는 장애 자녀가 있는 가족의 스트레스와 문제해결능력의 관계에서 가족탄력성의 조절효과가 확인되었는데 가족탄력성의 신념체계와 의사소통과정은 스트레스와 문제해결능력에서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가족탄력성이 높을수록 가족 구성원의 스트레스는 낮아지고 문제해결능력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가족의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가족적응은 약해지지만 가족탄력성이 발달장애인 가족의 스트레스를 완화하여 가족적응을 강하게 하는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송순인, 2010).

자아존중감은 가족요인에 의하여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고 연구되고 있다. Coopersmith(1967)와 Rogenberg(1965)는 가족탄력성이 가족 구성원들의 장애형제 문제로 인한 역기능적인 것들을 완충해주는 보호요인으로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위험에 처한 가족들과 특히 만성 질환 및 장애가 있는 가족을 이해함에 있어서 가족탄력성 접근의 유용함이 증명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가족탄력성을 분석 틀로 이용한 연구들이 늘어나고 있다(오승아, 2001; 송자경, 2003; 정미숙, 2005; 김고은, 2011).

1. 비장애 형제의 부담감과 자아존중감

김명선(1989)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발달장애 아동의 비장애 형제들이 갖게 되는 가장 큰 사회적, 심리적 갈등은 첫째 자기비하, 둘째 수치심, 셋째 죄책감, 넷째 부모의 비장애 형제에 대한 보상심리에 대한 부담감, 다섯째 분노, 여섯째 발달장애형제의 장애에 대한 걱정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발달장애자녀가 있는 가정의 비장애 형제들이 경험 할 수 있는 감정들은 첫째 두려움, 둘째 외로움, 셋째 화(anger), 넷째 분개, 다섯째 당혹감, 여섯째 혼란, 일곱째 질투, 여덟째 압박감, 아홉째 죄의식, 마지막으로 좌절감 등이 든다고 보고되었다(박민경, 1996).

형제간 상호작용은 서로의 발전과 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수명연장으로 형제가 관계를 맺는 기간이 늘어나면서 형제간의 지원적 관계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장미희, 2011). 그러나 비장애 형제들은 부모 이상으로 장애형제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게 되기도 하는데 이 때 비장애 형제에게 미치는 심리적인 부담감이 자아존중감 형성에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전혜인, 1997).

부담감이란 어떤 일에 대한 짐스러운 의무와 책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권진욱(2001)의 연구에서는 비장애 형제의 부담감을 가족관계의 부정적인 변화, 심리적인 부담, 사회적인 활동의 제한, 장애형제와의 관계 부정적인 변화 등으로 구분하였다. 즉, 부모님이 장애형제를 더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가족관계의 부정적인 변화, 장애를 갖고 있는 형제가 성

인이 되면 내가 보호해주어야 한다는 책임 때문에 고민한 적이 있다고 생각하는 심리적 부담감, 장애형제가 있음을 친구들이 몰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회적 활동의 제한과 장애를 갖고 있는 형제가 있다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한 적이 있는지를 포함한 장애형제 관계의 부정적인 변화 등으로 보았다.

자아존중감은 개인이 자기 자신의 중요성과 유능함 그리고 자신의 가치 등에 대해서 자신에게 하는 평가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는 자신을 수용 또는 거부하는 것을 나타내고 개인이 능력이 있고 성공적이며 의미가 있다는 것을 믿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 있다(Coopersmith, 1967; 김희화, 1998에서 재인용). 사춘기의 시작과 더불어 청소년기에 비장애 형제가 느끼는 감정들은 바로 이들의 자아존중감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자아존중감 역시 이들이 주로 접하는 정서경험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자아존중감이란 자신이 존중 받고 있다는 믿음과 자신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긍정적 평가이며, 이로 인해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신뢰를 갖는 것을 말한다. 자아존중감의 높고 낮음은 학자에 따라서 다른 연구결과를 나타내기도 하는데, Harvey와 Greenway(1984)의 연구에서는 장애 형제를 둔 형제는 비장애 형제를 지닌 형제에 비해 낮은 수준의 자아존중감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김정진(1994) 또한 사춘기 이후 비장애 형제가 장애를 갖고 있지 않은 가정의 형제보다 낮은 자아존중감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그 이유를 Harvey와 Greenway는 장애 형제들은 자아존중감에 있어 장애형제를 가지지 않은 또래에 비해 위기적

요소를 많이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방미경, 2007).

그러나 32명의 비장애 형제들을 연구한 Mates(1982)의 연구에서는 이들이 평균이상의 자아존중감을 보여주고 있다. 정은순(1992)에서도 비장애 형제들의 자아존중감이 일반 학생에 비해서 높다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보고하기도 하였다. 정은순(1992)은 그 이유를 비장애 형제들은 장애형제에 비해서 자기 자신의 능력을 높게 평가하게 되고 장애 형제에 대해서 부모와 같은 책임감을 느끼게 되므로 자아존중감이 향상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비장애 형제들은 장애 형제와 한 집에 함께 살면서 일반 가정의 형제가 겪게 되는 경험과는 다른 경험을 하게 되며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으면서 자아존중감이 형성, 발달하게 된다.

이와 같은 긍정적, 부정적 경험은 비장애 형제자매의 자아존중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며(박규향, 2000) 낮은 자아존중감은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건전한 인격형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질병을 유발시키는데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2. 장애자녀가족의 가족탄력성

McCubbin & McCubbin(1993)은 가족탄력성에 대해 가족 위기 상황에서 직접 접하여 적응을 이루고, 변화에 대비해서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거부를 돕는 가족들의 특이한 성질들과 수준들, 자산들로 가족탄력성을 정의하였다. 가족탄력성이란 용어가 삶의 도전에 접하

였을 때, 강력한 자원을 갖거나 위기나 도전을 체험한 후에 회복하는 가족의 능력인 자원을 좀 더 풍부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된다고 하였다. 이것은 위기와 도전에 대한 반응으로 인내하고 성장 자원은 역동적 과정으로 단지 생존하는 것뿐 아니라 시련을 통과하거나 이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포함한다고 하였다(박주연, 2011).

즉 가족체계는 역경이나 어려움이 가족에게 혼란을 일으켜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만화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가족의 자원을 충분히 사용하여 가족의 능력을 실천해 나가도록 돕는다는 관점이다. 가족은 장애자녀로 인한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가족통합의 약화나, 극단적인 경우 이혼으로 인하여 가족해체의 위험이 발생하기도 한다(김미옥, 2001).

장애는 일시적으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닌 일생을 지속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장애자녀가족은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노출하게 되는데 장애라는 낙인과 사회적인 부정적 태도로 인해 친구와 가족으로부터의 소외 및 장애자녀의 미래에 대한 불안, 염려등의 장애자녀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Wing, 1985; Wolf et al., 1986; 신향숙, 2000에서 재인용).

그러나 장애자녀가 있다고 해서 가족해체의 위험에 노출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가족들은 장애자녀로 인해서 오히려 가족 내 결속력과 응집력이 강화되기도 하며 가족 구성원 간 친밀감이 향상되기도 하고, 장애자녀를 통해 주변의 어려움 돌아보고 삶을 재 고찰하는 계기가 되는 등의 긍정적 변화의 계기

가 되기도 한다(Singer & Fark, 1989; 김미옥, 2001).

장애자녀가 있는 가족의 특성으로 외국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적응적인 가족경계의 유지, 의사소통능력개발, 상황에 대한 긍정적 의미부여, 가족 유연성 유지, 가족 구성원간의 헌신 유지, 활동적인 대처노력에의 참여, 사회통합의 유지, 전문가와 상호협력관계 개발 등을 제시했다(Singer & Power, 1993; Patterson, 2002). 특히 장애에 대한 긍정적인 의미 부여는 가족구성원이 장애를 어떻게 해석하는 지에 대한 평가이다. 이는 가족통제감 개념 중 하나인데 높은 가족통제감은 탄력적인 가족의 특징이기도 하다(Walsh, 1998).

3. 가족탄력성과 자아존중감

김수정(2012)의 연구에서 비장애 형제의 자아존중감에 가족탄력성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설명력은 인구사회학적 변인보다도 더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전통적 가족이 갖고 있는 강점요인으로 지목 하였던 가족 SES와 장애의 정도 보다 오히려 가족탄력성이 비장애 형제의 자아존중감을 더 잘 설명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가족탄력성에 대한 적절한 개입이 가족 구성원의 자아존중감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가족탄력성이 실제로 가족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본 결과 가족은 자녀의 장애 사실에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융통성 있고 동시에 안정적 가족체계를 개발하며, 개방적 소통을 통해서 가족의 적응력을 키우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족의 특성은 이들 가족이 쉽지 않은 환경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가족시스템을 유지해 온 성공에 대한 경험이 축적되어 있는 조직이라는 점을 보여준다(김수정, 2012).

가족의 탄력성 수준이 높으며 가족구성원들이 가치관과 목표를 함께 공유하고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면서 협력이 잘 이루어질 경우 가족 내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며 사회와의 유대가 잘 이루어진다고 자각할 때 자아탄력성의 수준이 높게 나타남으로써 가족탄력성이 자존감의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서하진, 김정옥, 2009). 또한 가족탄력성은 아동의 사회적응에 대한 가족스트레스의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키는 조절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정현주, 2009).

또한 가족탄력성이 높은 경우에는 편안하며 유대감이 있는 가족구성원 안에서 자신의 문제의 해결과 대처능력, 자아존중감을 키워 나갈 수 있는 토양을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김옥선, 오윤자, 최명구, 2005; 박민주, 황기아, 2007). 발달장애인과 비장애 형제간의 지원적 관계는 발달장애인 및 가족체계에 중요하고 나아가 비장애 형제 개인에게도 핵심적 이슈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비장애 형제의 부담감을 측정하고 예측하여 비장애 형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며,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연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잘 이루어지지 못해 왔다.

이윤미(2015)와 정유진과 전해인(2014)의 비장애 형제 연구에서 연구대상의 연령이 초등

학생인데 이런 경향을 이윤미(2015)는 초등학교 때의 시기가 의사소통이 비교적 가능하고 연구가 수월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중, 고등학생이 되는 사춘기를 경험하면서 비장애 청소년이 장애 형제로 부터 받게 되는 스트레스와 분노의 감정이 커지게 되며 비장애 형제의 심리적 갈등이 높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청소년기의 연구가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특수교육, 장애인 복지의 동향 중 하나로 장애인이 문제점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라는 관점보다 장애 발생이나 장애 발생 이후 장애인의 특정한 인생시기에 장애인 개인과 그 가족들이 필요로 하는 포괄적 지원에 역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및 교육현장에서도 가족의 중요성과 욕구가 중요한 쟁점이 되면서 프로그램과 지원체제의 중심이 장애인 개인으로부터 점차 가족중심으로 옮겨 가야 한다고 보고 있다(석말숙, 2013).

본 연구에서는 발달장애인 형제를 둔 비장애 청소년의 부담감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가족탄력성이 이들 간에 조절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으며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청소년기 비장애 형제가 지각하는 부담감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청소년기 비장애 형제가 지각하는 부담감과 이들의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에서 가족탄력성의 조절효과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발달장애인 형제를 둔 비장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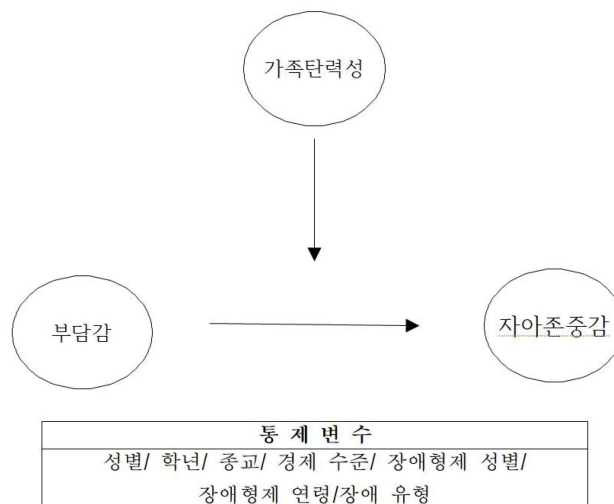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청소년의 부담감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가족탄력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발달장애인을 형제로 둔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청소년기 비장애 형제 총 116명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C시에 위치한 발달장애전담 특수학교와 장애인 복지관과 S시에 위치한 장애인 복지관에 본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소개하고 기관장 또는 담당자의 도움을 받아서 연구조건에 부합하는 대상을 연구에 포함하였다. 설문 방법은 비장애 형제들만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자아존중감에 대한 비장애 형제의 자기 보고식 설문으로 구성하여 조사하였다.

먼저 C시에 위치한 H 특수학교에서 만 11~18세 청소년 1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표집방법으로는 대상자의 특성상 유의표집으로 하였으며 조사는 2019년 7월부터 2019년 9월에 걸쳐 진행되었다. 총 200부의 설문지가 배부되었으며 116부가 회수되었다.

2. 측정도구

독립변수: 청소년기 비장애 형제 부담감 척도

본 연구의 부담감 측정도구는 권진욱(2001)의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가족관계의 부정적인 변화 10문항, 심리적인 부담 8문항, 사회적인 활동의 제한 10문항, 장애형제와의 관계 부정적인 변화 11문항 이렇게 네 영역으로 모두 39문항이다.

가족관계의 부정적인 변화의 문항으로 ‘부모님께서 내게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무

관심하다’, ‘부모님은 장애 형제를 더 좋아한다’ 등이 포함되며, 심리적 부담감 문항의 질문으로 ‘나는 장애를 갖고 있는 형제가 성인이 되면 내가 보호해주어야 한다는 책임 때문에 고민한 적이 있다’, ‘나는 고민을 이야기 할 사람이 없다’는 등의 문항이 포함된다. 사회적 활동의 제한 문항으로는 ‘장애를 갖고 있는 형제를 돌보아야 하는 시간 때문에 공부에 지장이 있다’, ‘장애형제가 있음을 친구들이 몰랐으면 좋겠다’ 등이 있고 장애형제 관계의 부정적인 변화와 관련된 질문으로 ‘나는 장애를 갖고 있는 형제가 있다는 것이 부끄럽다’, ‘나는 장애 형제를 미워한 적이 있다’ 등이 포함된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 4점, ‘그런 편이다’ 3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을 부여해 점수를 환산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담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부담감 측정도구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가족관계의 부정적인 변화 .760, 심리적 부담감 .614, 사회적 활동의 제한 .726, 장애형제 관계의 부정적인 변화 .668, 전체 척도의 신뢰계수가 .80 이상으로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수: 자아존중감 척도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양원경(1999)이 Harter(1985)의 Self-perception Profile for Children을 사용하였던 척도를 사용하였다. 문항은 총 2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하위요소로는 운동능력과 학업능력, 사회적 수용도와 신체용모, 행동품행의 5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방식으로는 ‘전

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Likert식 5점 척도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것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의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97$ 로 나타났다.

조절변수: 가족탄력성 척도

McCubbin등(1998)의 가족탄력성 모델에 기초하여 발달장애인 가족의 탄력성은 가족자원과 가족평가 그리고 사회적 지원과 대처의 영역으로 측정이 이루어졌다. 5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1점 '전혀 아님', 2점 '아닌 편임', 3점 '보통', 4점 '그런 편임', 5점 '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측정하였다. 각 항목별 점수를 합산해서 문항수로 나눈 평균점수를 분석에 사용하였고 평균이 높을수록 가족탄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오승아(2001)가 변안하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도록 재구성한 7개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장미희(2011)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864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932로 나타났다.

3.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SPSS 23.0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구체적인 통계 방법으로 표본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고, 측정도구의 신뢰도 분석을 위해 Cronbach α 값을 구하였다. 기초분석으로 연구대상 변수의 기술 통계, 주요 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피어슨 상관관계수, VIF, 공차한계값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주요 연구목적인 부담감이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대한 가족탄력성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3단계 위계적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조사대상자 본인과 장애 형제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특성

설문에 응답한 총 116명 학생 중 남자는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 = 116)

구분	분류	빈도	백분율(%)
성별	남자	50	43.1
	여자	66	56.9
학년	초등	43	37.1
	중등	37	31.9
	고등	36	31
종교	없음	62	53.4
	있음	54	46.6
월수입	300만원 미만	40	34.5
	300만원 이상	76	65.5
장애형제 성별	남자	77	66.4
	여자	39	33.6
장애형제 연령	4-13세	48	41.4
	14-19세	39	33.6
	20-26세	29	25
장애유형	지적 장애	66	56.9
	자폐증	36	31.0
	기타	14	12.1

50명(43.1%), 여자는 66명 (56.9%)으로 여학생의 비율이 남학생보다 조금 높았다(표 1 참조). 학년별로 보면 초등학교 5학년과 6학년이 43명(37.1%), 중학생이 37명(31.9%), 고등학생이 36명(31.0%)으로 나타났다. 또한 종교가 있는 학생은 54명(46.6%)이었다.

월수입에서는 300만원 미만이 40명(35.1%), 300만원 이상이 76명(64.9%)로 응답하였다. 장애형태 성별에서는 남자가 77명(66.4%), 여자가 39명(33.6%), 장애형태 연령으로는 4~13세가 48명(41.4%), 14~19세가 39명(33.6%), 20~26세가 29명(25%), 장애유형별로 보면 지적장애가 66명(56.9%), 자폐증이 36명 (31.0%), 기타가 14명(12.1%)으로 나타났다.

2. 주요변인의 기술통계와 상관분석

기술통계 분석

기술통계치는 표 2와 같다. 독립변수인 부

담감의 평균은 1.99이며 조절변수인 가족탄력성의 평균은 3.49 종속변수인 자아존중감의 평균은 3.39로 나타났다. 왜도와 첨도는 0에 가까울수록 정규성을 나타내는데, 일반적으로 왜도의 절대값이 3.0이상, 첨도의 절대값이 10.0 이상일 때 정규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Kline, 1998). 본 연구에서의 변수들은 왜도의 절대값이 0.524에서 0.646의 범위, 첨도의 절대값이 0.356에서 1.120의 범위 안에 있어서 정규성 가정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

상관관계 분석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모두 .7 이하로 나타나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다. 또한 다중공선성을 좀 더 엄격하게 확인하기 위해 분산팽창계수(VIF)와 공차한계(tolerance)

표 2. 주요변수의 기술통계치

구분	변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독립변수	부담감	1.36	3.05	1.99	.40	.65	.007
조절변수	가족탄력성	2.35	4.60	3.49	.53	-.52	-.36
종속변수	자아존중감	1.64	4.76	3.39	.53	-.62	1.12

표 3. 변수들간의 상관관계

	부담감전체	가족탄력성전체	자아존중감전체
부담감전체	-		
가족탄력성 전체	-.433***	-	
자아존중감 전체	-.490***	.672***	-

*** $p < .001$.

를 확인하였다. 분산팽창계수는 10이상, 공차한계는 0.1이하인 경우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데, 본 연구에서 분산팽창계수 1.174~ 2.072로, 공차한계도 0.1이하인 경우가 없으므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부담감과 가족탄력성의 관계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r = -.433, p < .001$)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가족탄력성과 자아존중감과의 관계는 정적

상관관계($r = .672, p < .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부담감과 자아존중감간의 관계는 부적 상관관계($r = -.490, p < .001$)가 나타났다.

3. 연구모형의 검증

청소년 비장애 형제의 부담감, 가족탄력성, 자아존중감의 관계 및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먼저 위계적 회귀분

표 4. 자아존중감에 대한 부담감과 가족탄력성의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Model		종속변수 = 자아존중감								
		Model 1			Model 2			Model 3		
		<i>B</i>	β	<i>t</i>	<i>B</i>	β	<i>t</i>	<i>B</i>	β	<i>t</i>
통제변수	성별	.088	.083	.836	.126	.118	1.614	.126	.118	1.668
	학년	-.174	-.272	-2.405*	-.015	-.024	-.270	.019	.030	.351
	종교	.293	.277	2.763**	.175	.166	2.197*	.108	.102	1.334
	가구월소득	.037	.034	.368	-.038	-.034	-.510	.011	.010	.145
	장애형제성별	-.203	-.182	-1.791	.001	.001	.012	.022	.019	.249
	장애형제연령	.079	.119	1.057	-.056	-.084	-.979	-.116	-.175	-1.961
	장애유형_지적		-			-			-	
	장애유형_자폐	.207	.182	1.679	.126	.110	1.364	.053	.046	.570
	장애유형_기타	-.080	-.049	-.473	.004	.003	.033	-.072	-.044	-.580
독립변수	부담감A				-.375	-.284	-3.832***	-.223	-.168	-2.036*
조절변수	가족탄력성B				.540	.542	6.542***	.517	.519	6.431***
상호작용	A*B							.480	.243	2.811**
	상수		3.471***			2.240***			2.122***	
	<i>R</i> ²		.188			.568			.599	
	<i>R</i> ² (<i>adj</i>)		.128			.527			.556	
	<i>F</i>		3.106**			13.814***			14.102***	
Durbin Watson =1.399										

Durbin Watson = 1.399

* $p < .05$, ** $p < .01$, *** $p < .001$.

주) 교차 항은 두 변인의 값을 평균중심화(mean centering)를 하여 구한 것이고, 제시된 F값은 각 단계에서의 회귀모형 전체의 F값임. Dummy Variable화 하여 사용함.

석을 통해 1단계에서는 통제변수만 투입하여 분석하고, 2단계에서는 독립변수와 조절변수 투입 후 분석, 3단계에서는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여 R^2 변화량이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확인하였다. 이 때 독립변수와 조절변수 사이에 다중공선성이 발생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하여 각 변수를 표준화하여 투입하였다.

Model 1은 통제변수를 투입한 모형이다. 이 모형에서는 학년은 자아존중감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beta = -.272, p < .05$), 종교는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beta = .293, p < .01$)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년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낮고, 종교가 있을 경우 자아존중감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그 외의 변수는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Model 2는 통제변수와 더불어 독립변수인 부담감과 조절변수인 가족탄력성을 함께 투입한 모형이다. 이 모형에서는 Model 1에서 유의했던 학년의 영향력이 사라졌고, 종교의 영향력은 여전히 자아존중감을 유의하게 증

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166, p < .05$). 이와 더불어 독립변수인 부담감은 자아존중감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beta = -.284, p < .001$), 조절변수인 가족탄력성은 자아존중감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beta = .542, p < .001$)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부담감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감소하고 가족탄력성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Model 3은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상호작용 변수를 추가적으로 투입한 모형이다. 이 모형에서는 부담감($\beta = -.168, p < .05$)과 가족탄력성($\beta = .519, p < .001$)이 여전히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상호작용항 역시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243, p < .001$). 부담감이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적으로 유의한 상호작용항의 영향력은 완화효과를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부담감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아지지만, 가족탄력성이 높은 집단은 자아존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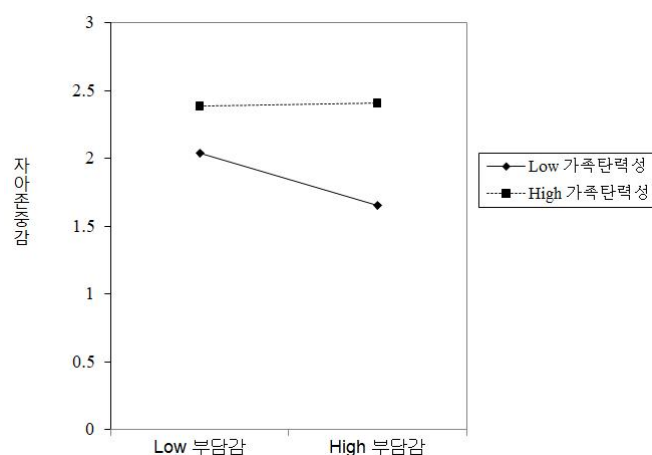


그림 2. 자아존중감에 대한 부담감과 가족탄력성의 상호작용효과

감이 덜 낮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조절효과
의 유의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R^2 의 변화
량을 확인해야 하는데, 1단계에서 3단계로 갈
수록 점차적으로 R^2 이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조절효과의 유의성이 더욱 신뢰할 만한 결과
임을 알 수 있다.

조절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이를 좀
더 명확히 확인하기 위하여 조절효과 그래프
를 통해 시각화하였고 그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그래프를 보면 가족탄력성이 높은 집단
은 자아존중감의 초기값이 높고, 부담감이 높
아져도 그 수준이 유지되는 반면, 가족탄력성
이 낮은 집단은 자아존중감의 초기값이 낮을
뿐만 아니라 부담감이 높아질수록 자아존중
감 수준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가족탄력성이 높은 집단은 자아존중감 수
준이 높을 뿐만 아니라 장애형제로 인한 부
담감이 높아져도 자아존중감 수준이 유지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담감과 가족탄력성
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은 중앙값을 기준
으로 구분하였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발달장애인 형제를 둔 비장
애 청소년의 부담감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가족탄력성이 조절하는지 검증하여
청소년기 비장애 형제의 자아존중감을 높이
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 모색의 기반마
련에 그 목적이 있다. 연구의 결과와 연구문
제에 따른 요약과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기 비장애 형제의 부담감은 자

아존중감에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즉, 부담감 수준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의 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밝혀
졌으며 구체적으로 가족관계의 부정적인 변
화가 크다고 느낄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은 것
으로 나타났다. 가족관계의 부정적인 변화에
는 부모님이 내가 하는 일에 무관심하거나
장애형제에게만 관심을 갖거나 장애형제를
더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이러한 결과
로 볼 때 비장애 형제가 장애를 갖고 있는
형제 때문에 소외당한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
록 가족이 함께 보내는 시간의 질적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비
장애 형제에게 자신만의 시간적 여유를 보장
해주거나 가족끼리 장애를 갖고 있는 형제에
대해서 솔직하게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대화의 시간을 주기적으로 갖는 것이 도움이
되며, 이때 반드시 비장애형제의 스트레스 또
는 불만에 대하여 신중하게 들어주고 이것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것
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장애형제에 대해 이해하고 돕기
위해서 비장애 형제의 대인관계와 정서적 어
려움을 극복하고 적극적인 사회적 표현을 도
외줄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장애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제공 등이 포함된 다
양한 프로그램이 강조되어야 한다. 그리고 비
장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령의 특성에
맞는 보다 전문화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
하고 참여를 유도하여 실생활에 도움을 주어
야 할 것이다. 장애형제와의 관계를 부정적으
로 생각하는 내용에는 장애형제와 노는 것이
재미없다거나 장애형제의 이해 할 수 없는

행동으로 비장애 형제를 당황스럽게 하는 등의 행동이 포함되는데 장애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장애형제가 갖고 있는 약점과 장애형제와 비장애형제가 상호작용할 수 있는 방법 등과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설명해 주는 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청소년기 비장애 형제의 부담감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가족탄력성이 조절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부담감이 높으면 청소년기 비장애 형제의 자아존중감이 낮은 반면, 가족탄력성이 높으면 청소년기 비장애 형제의 부담감이 높아져도 자아존중감의 감소는 완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가족탄력성은 청소년기 비장애 형제의 부담감과 자아존중감 사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가족탄력성이 높을수록 비장애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인데 가족의 질적 유대, 가족 강점이 비장애 청소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장미희(2011)의 선행연구의 결과를 재확인할 수 있었다. 가족탄력성이 높은 가족이 가족구성원 간의 유대가 강하고, 가족구성원 간 상호지지적, 상호호혜적인 관계를 유지하는데, 이런 가족 간 체계의 특성이 발달장애인과 비장애 형제간의 지원적 관계에도 영향을 주며, 특히 비장애 형제가 발달장애인 형제를 수용, 지원하는 데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비장애 형제의 긍정적 관계를 지속시키기 위해서 가족구성 체계의 긍정적 유대관계를 증진적으로 유지 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을 말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셋째, 분석결과 청소년기 비장애형제의 종교가 있는 경우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급학교로 진학 할수록 자아존중감은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중, 고등학생이 되는 사춘기를 경험하면서 비장애 청소년이 장애 형제로부터 받게 되는 스트레스와 분노의 감정이 커지게 된다는 김효숙(2003)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장애아동의 출현이 비장애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게 됨을 보여주는 것으로 비장애 청소년이 고학년이 될수록 적절한 개입의 필요성이 시사되어 진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 비장애 형제에게 장애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 줌으로써 가족 내의 장애인식이 먼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장애에 대한 편견과 선입관을 없애는 것을 목적으로 비장애 형제들 끼리 같은 어려움을 공유하고 또래들과 같이 이겨 나갈 수 있는 비장애 형제 프로그램을 통해 자아존중감을 고양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중·고등학생 시기에는 학교생활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룹 활동이나 집단상담 등을 꺼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개별상담이나 개별활동, 학교외의 시설에서 장애인들과 어울려서 할 수 있는 자원봉사 활동 등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인식과 장애를 갖고 있는 형제에 대한 인식고양에 도움이 될 것이다.

분명 장애가 있다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독특한 상황에 접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장애자녀가족의 비장애 형제들이 공통적으로 장애 형제를 갖고 있지 않은 또래의 친구들이 경험하지 않는 감정적

응상의 도전을 받는 것은 분명하다. 이러한 특성을 지닌 장애자녀가족의 형제들도 장애 자녀에게 특별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듯 특별한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것만은 분명하다 (Dunst, Trivette, & Deal, 1988).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자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조사대상을 초등학교 5-6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으로 제한하였는데, 분석결과 학년이 높아질수록 비장애 형제의 자아존중감이 장애형제가 없는 아동들보다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조사대상을 대학생 이후의 연령으로 확대하여 장애형제로 인한 어려움을 좀 더 폭넓고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적장애인의 주부양자가 부모 다음으로 비장애 형제의 비율이 높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성인 지적장애인과 관련된 비장애 형제의 연구는 아동기와 청소년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조사 연령대의 확대가 필요하다(김다혜, 한재희 2016).

또한 후속연구에서는 장애유형별로 연구하거나 장애유형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양한 영역의 장애가족 전문가들이 각각의 연령대에서 겪을 수 있는 비장애 형제들의 어려움에 관하여 기초자료 수집과 이를 바탕으로 한 실증적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개입의 효과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조사대상이 된 비장애 형제들은 청소년이라는 특성상 매우 민감하고 응답을 거부할 수도 있으며 일부는 부모님을 의식한 응답이 분석에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추후에는 인터넷 설문이나 휴대폰

앱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온라인 조사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겠다.

또한 발달장애인이 있는 가족은 어떤 장애보다 장애의 유형과 장애의 중경증 정도에 따라 다양한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비장애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과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발달장애인을 형제로 갖고 있는 비장애 형제와 이들의 가족 복지와 삶의 질이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효경, 유장순 (2012). 장애아동가족의 스트레스가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가족탄력성 조절효과 중심으로. *초등상담연구*, 11(3), 427-446.
- 권진옥 (2001). 장애아동 형제의 자아개념에 관한 연구 장애아동 형제와 일반아동형제의 비교를 중심으로. 목원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 김경진 (1994). 자폐아 형제의 우울과 사회적응.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고은 (2011). 장애아동 아버지의 가족탄력증진 프로그램 효과성 연구. *사회복지연구*, 42(2), 443-465.
- 김다혜, 한재희 (2016). 지적장애형제를 둔 비장애형제자매의 심리적 현상. *상담학연구*, 17(5), 357-375
- 김명선 (1987). 정신지체자의 형제들이 갖게 되는 사회적 심리적 갈등에 관한 연구. *송실*

- 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옥 (2001). 장애아동가족의 적응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관한 연구. 가족탄력성 (family resilience)의 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수정 (2012). 가족탄력성과 사회적 지지가 비장애 형제자매의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 성인 발달장애인 가족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특수교육 석사학위논문.
- 김옥선, 오윤자, 최명구 (2005). 초등학생이 지각한 가족건강성과 자아탄력성이 학교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교육심리연구, 19(3), 761-777.
- 김희화 (1998).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발달: 환경변인 및 적응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효숙 (2003). 장애아동의 비장애 형제들이 겪는 심리적 갈등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류수민, 한영주 (2015). 중증장애인의 비장애 형제로 살아감에 대한 질적 연구. 상담학 연구, 16(2), 121-155.
- 문혁준, 양성은, 김혜금, 천희영, 권영인, 조한숙 (2012). 가족관계. 서울: 창지사.
- 박규향 (2000). 자폐성장장애 형제간의 사회적 상호작용 정도와 비장애형제의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민경 (1996). 장애형제를 둔 정상형제자매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민주, 황기아 (2007). 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건강성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정과학회지, 10(2), 43-51.
- 박수경, 배종필, 이정하, 서경주, 이선우 (2019). 중년기 발달장애인 자녀와 어머니의 함께 나이 들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 한국장애인복지학회, 45(45), 57-91.
- 박주연 (2011). 가족탄력성과 사회적 지지가 한부모와 청소년기 자녀의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방미경 (2007). 장애아 어머니 양육행동이 비장애 형제의 우울감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석사논문.
- 서하진, 김정옥 (2009). 대학생이 지각한 가족건강성이 자아존중감과 행복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4(3), 141-178.
- 석말숙 (2013). 장애인가족과 비장애인가족의 가족기능 비교연구: McMaster Model의 적용. 한국가족복지학, 18(2), 105-131.
- 송순인 (2010). 정신장애인 가족적응에 관한 연구-가족탄력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사회복지개발연구, 16(2), 133-155.
- 송자경 (2003). 간질아동과 가족의 적응에 관한 연구: 가족통정감(Family Coherence)과 가족강인성(Family Hardiness)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논문.
- 신향숙 (2000). 발달장애아동 어머니의 디스트레스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혜용 (2002). 발달장애인 형제를 가진 비장애 청소년의 문제 행동 및 형제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원경 (1999). 또래수용성 및 또래 괴롭힘과 남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승아 (2001). 장애아동가족의 레질리언스 모델 연구. 성균관대학교 아동학과 박사학위논문.
- 유신복, 손원숙 (2014). 초등학생이 지각한 어머니의 정서표현성, 기본심리욕구, 정서 조절 및 공격성간의 구조적 관계. *교육심리연구*, 28(1), 205-224.
- 육영화 (2012). 비장애형제를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장애형제를 대하는 태도와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효과. 한양대학교 아동심리치료학과 석사논문.
- 윤희림, 박지연 (2017). 사회·정서학습 프로그램이 장애형제를 둔 초등학생의 자아개념, 사회적 행동, 부모와의 의사소통에 미치는 효과. *한국청소년연구*, 28(2), 5-33.
- 이윤미 (2015). 장애아동의 비장애 형제 관련 연구 동향: 학술지 게재 논문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윤화, 권진욱 (2002). 장애아동형제의 부담감에 관한 연구 대전 지역을 중심으로. *연세사회복지연구*, 8, 59-85.
- 이혜연 (2015). 장애아동의 부모양육태도가 비장애형제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부모교육연구*, 12(1), 17-37
- 장미희 (2011). 가족탄력성이 성인 발달장애인의 비장애 형제자매 관여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논문.
- 장휘숙 (2007). 형제자매의 구성과 친구관계, 애착 및 생활만족의 관계. *인간발달연구*, 14(2), 53-70.
- 전혜인 (1997). 장애아동의 비장애형제를 위한 형제지원 프로그램이 비장애형제의 장애형제를 대하는 행동과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미숙 (2005). 척수장애인가족의스트레스와적응에관한연구: 가족적응유연성 요인의 상호작용적 완충효과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 정유진, 전혜인 (2014). 장애아동의 비장애 형제자매 지원중재에 관한 국내 실험연구 고찰. *특수교육학연구*, 49(1), 283-301.
- 정은순 (1992). 정신지체아 정상형제자매의 자아존중감과 부모태도에 대한 지각.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 정현주 (2009). 자폐성 장애아동의 가족스트레스와 사회적응과의 관계: 가족탄력성과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 분석. 동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영실, 양소남 (2018). 성인 지적장애인을 부양하는 비장애남자 형제의 돌봄경험에 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62, 5-38.
- Coopersmith, S. (1967).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San-francisco: W. H. Freeman.
- Dunst, C. J., Trivett, C. M., & Deal, A. G. (1988). *Enabling and empowering families*. Cambridge, MA: Brookline Books.
- Harvey, D. H. P., & Greenway, A. P. (1984). The self-concept of physically handicapped children and their non-handicapped sibling: An enpirical intervention.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25, 273-283.
- Kline, R. B. (1998). *Principle and Practice of*

-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Mates, T. E. (1982). *Which siblings of autistic Children are at greater risk for the development of school and/or personality difficulties? Paper presented at the National Society for Autistic Children*, Omaha, NE.
- McCubbin, H., & McCubbin, M. (1993). *Family coping with health crisis: The resilience model of family stress, adjustment and adaptation*. in C. Danielson, B. Hamel -Bissell & P. Winstead-Fry(Eds.), *Families, Psychological Association Convention*, Los Angeles, CA.
- McCubbin, M. A., McCubbin, H. I., & (1998). Editorial: The Resilience of the Field of Family Therapy.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24, 269-271.
- Patterson, J. M. (2002). Integrating Family Resilience and Family Stress Theory.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4(2), 349-360.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adolescent self image*.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N. 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oss, H. G., & Dalton, M. J. (1981). *Perceived determinants of closeness in adult sibling relationships. Paper presented at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Convention*, Los Angeles, CA.
- Singer, G. H. S., & Powers, L. E. (1993). *Families, Disability, and Empowerment*. Paul H .Brookes Publishing Co.
- Singer, L., & Farks, K. J. (1989). "The Impact of Infant Disability on stress and Social Networks in Families with a Handicaped Child". *Family Relations*, 33, 66-77.
- Walsh, F. (1998). Editorial: The Resilience of the Field of Family Therapy.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24, 269-271.

1 차원고접수 : 2020. 04. 23.

수정원고접수 : 2020. 06. 13.

최종게재결정 : 2020. 06. 17.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ense of Burden and
Self-Esteem of Non-disabled Adolescents who have Brother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 Focused on the Moderating Effect of Family Resilience -**

Chang, Jinah

Hwang, Hyewon

Dept. of Social Welfare, Cheongju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the sense of burden on the self-esteem of non-disabled adolescents who have brother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to determine if family elasticity has a controlling effect among these variables. For this purpose, 116 adolescents aged 11 to 18 without a disability and with a sibling who has a disability were surveyed using self-reporting questionnaires. The SPSS 23.0 statistics suite was used to identify the correlations between the variables, and this was followed by a hierarchical regulation regression analysis to confirm whether family resilience moder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ense of burden felt by an adolescent sibling without a disability and his/her self-esteem.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first, that the sense of burden felt by the sibling without a disability had a significant negative influence on self-esteem. This indicates that a higher level of the sense of burden caused by the existence of a sibling with a disability may reduce the level of self-esteem. Second, family sensitivity had a significant and positive moderating effect on the influence of the sense of burden felt by an adolescent sibling without a disability upon self-esteem. That is, in the pathway of the negative influence from the sense of burden on self-esteem, family resilience could function as a protective factor. Based 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the researcher provides practical strategies for enhancing family resilience and suggests the need for intervention on adolescent siblings without disabilities in the field of education and social welfare.

Keywords: adolescent sibling without a disability, sense of burden, self-esteem, family Resilience, moderating effect.